https://doi.org/10.5392/JKCA.2018.18.09.521

『士小節』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에 대한 현대적 해석

A Modern Interpretation of Parents' Character Virtues for the Rearing of Childern through the 〈Sasojeol〉

주영애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Young－Ae Ju(jyoungae@sungahin.ac.kr)

요약

본 연구는 부모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덕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소절>을 통해서 논의해 보았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로 진행되었다. 조선 후기 규범서인 이덕무의 『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은 어떠한 내용인가? 부모인성은 어떠한 현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연구결과 아버지의 인성은 '안정과 온화함', '신뢰와 절제', '이해와 배려'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인성은 '공순과 화순', '책임', '이해와 배려'로 나타났다. 이 내용의 현대적 의의는, 첫째, 부모인성덕목은 보고 배우는 학습을 통해서 계승된다. 둘째, 언행을 통해서 표현된다. 셋째, 가족윤리로 강조된다. 넷째 오늘날 인성교육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는 인성핵심덕목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인성교육에 앞서서 부모인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부모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스스로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중심어 : | 부모인성덕목 | 인성 | 부모 | 인성교육 |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about virtues and character of good parents for the rearing of children through the <Sasojeol> written by Lee, Deok-Moo treating traditional education in late Chosun Dynasty. The study is conducted by answering the two questions for inquiry. First, what is the virtues and character of parents discussed in <Sasojeol>? Second, what is the modern meaning of character of the parents? Father's character is expressed as 'stability and warmth', 'trust and moderation' and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And Mother's character includes 'politeness and harmony', 'responsibility' and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These results present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rom a modern perspective. First, children inherit character and virtues of parents through visual learning. Second, character and virtues of parents are expressed as language and behavior. Third, it is emphasized as ethics of family. Fourth, it is closely linked to the core virtues of character with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Therefore, parents need to do self-reflection and effort to improve their own characters for character education of next generation.

■ keyword : | Parent's Character Virtues | Character | Parents | Character Education |

* 본 연구는 2017년 후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7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9월 05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29일　　교신저자 : 주영애, e-mail : jyoungae@sungshin.ac.kr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왜 부모 인성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가? 존브래드쇼는 지구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부모가 되는 일이며,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는 일[1]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면아이 치유를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며, 과거 성장과정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1]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로서의 바른 인성은 자녀에게 투영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신이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부를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면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이 희망하는 삶과는 괴리가 큰 삶의 도전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응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불신과 불만, 상대적 박탈감, 분노와 우울, 무기력 등을 만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 등 산적한 사회문제와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부모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2]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며 연구를 전개하였다. 즉 사회문제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부모의 왜곡된 자녀양육태도와 인성교육의 부재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도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법제화 했으나 아직도 인성교육의 실천과 그 발현은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인성이란 개념은 품성, 덕성 등의 개념과 상당부분 겹쳐 있다. 이러한 인성이란 습관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으로 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보다 바람직한 공동체 삶을 지향하도록 '함께 살아가는 품성'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인성을 생각해야하는 이유도 자녀가 공동체 사회에서 더불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인본과 도덕을 중심으로 유교 문화적 배경 가운데에 자녀를 성장시켰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우리사회에서는 인성을 논함에 있어서 이러한 동양철학의 근본 입장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논하고 있다. 동양철학에서 인성의 개념은 인간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구현해야 할 가치나 규범으로 해석한다. 공자는 지(知), 인(仁), 용(勇)을 인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고 그것이 합치되면 온전한 인격이 된다고 하였다[3].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인성'이라는 내용으로 개최된 「열린부모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조상들이 지향했던 삶의 특징으로 '선비'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언행이 신중한 사람, 주색을 멀리하고 삼가는 사람, 독서를 하여 교양이 있고 청렴한 사람, 조상과 어른을 잘 섬기는 사람 등[1]으로 요약했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2015)에도 인성의 핵심적인 덕목으로의 하나로 전통사회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왔던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예(禮)를 비롯하여 효, 정직, 책임, 존중, 소통, 배려, 협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인성 덕목의 많은 부분이 계승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규범서인 이덕무의 『사소절』에 언급된 인성덕목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사소절』은 전통사회의 부모인성을 논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아동들이 지켜야할 기본예절의 실천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고전이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인성이 곧 자녀의 인성으로 이어진다는 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소임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부모인성에 대해 현대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하에 형성

되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인성덕목의 가치와 그 계승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첫째, 『사소절』에 나타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인성덕목은 어떠한 내용인가? 둘째, 부모인성덕목은 어떠한 현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다.

연구문제에 따라서 『사소절』 <사전>과 <부의>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에 대하여 내용분석 하였다. 『사소절』은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덕무에 의해 조선 영조 51년(서기 1775년)에 저술된 규범서로 아들인 이광규가 1808년 말 1809년 초에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로 편집하였고, 이완수가 교정하여 엮어 간행하였다[4]. 이 중 권27-31에 『사소절』이 수록되었으며, 남성을 위한 사전(5권), 여성을 위한 부의(2권), 아동을 위한 동규(1권)로 총 8권으로 나뉘어져 서술되었다. 이덕무는 북학파에 속한 실학자로 사실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찾아내는 '실사구시'의 이념 하에 사회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생활과 결부하여 집필하였다. 내용분석에 활용된 아버지 인성에 대한 논의는 <사전>의 내용을, 어머니 인성에 대한 논의는 <부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사소절』 원본 내용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사소절』 사전과 부의의 구성 내용

士典		婦儀	
券之 一	性行, 言語, 服食	券之 六	性行, 言語, 服食, 動止
券之 二	動止, 勤愼		
券之 三	敎習, 人倫		
券之 四	交接	券之 七	敎育, 人倫, 祭祀, 事物
券之 五	御下, 事物		

본 연구는 응용학문이며 실천학문적 관점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생성, 변화와 변용, 소멸, 계승 등의 순환과정을 거치는 생활문화의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지닌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전제하며, 동시에 오늘날에도 계승될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존재하는 '인성'에 대한 가치를 재논의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고전인 『사소절』이 활용된 까닭은 첫째, 『사소절』에는 인성함양을 위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의범절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인성이 정신적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지침이 되도록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이덕무는 '조그만 행실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행위를 그르친다.'고 보았고, 그 '작은 행실이 곧 사소한 예절(小節)'이라고 보았다. 둘째, 『사소절』이 집필된 시기는 인본주의적 인성을 강조한 전통사회였지만, 중세적인 규범이 이완된 전환기적인 양상이 드러나면서 변화하는 시대였고, 『사소절』은 그 상황에서 태동한 실학에 기초하여 서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덕무가 『사소절』 서문에 쓴 집필동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집필 시기를 오늘날과의 시간적 간극으로 볼 때도 현대와 가깝고, 실용적 가치를 중시한 규범서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소절』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는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예절교육, 동몽교육, 아동생활지도 등으로 분석하였지만, 부모인성의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성예절교육 관점에서 연구 한『사소절』사전의 분석[5]연구나 『사소절』의 식생활규범을 토대로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콘텐츠를 개발[6]한 응용적인 연구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시도하려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사소절』내용에 대해 '부모인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은 규범과 훈육적인 내용이 개인행동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면적 성찰과 자기관리를 통해서 성숙한 인성을 갖추게 하여 결국에는 자녀에게 투영되는 책임의식으로 강화되고 재해석 될 수 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되어 가계를 계승하고 종묘를 모시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보았으므로, '인성'은 곧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부모인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사소절』의 <동규>는 아동을 위한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가 지켜야 할 규범을

담고 있는 <사전>과 <부의>를 중심으로 부모의 인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전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인성에 대한 내용을, 부의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인성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부모인성덕목을 각각 3가지 범주로 도출했으며, 그에 따른 실천으로 강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소절』에 제시된 부모인성덕목에 담겨있는 현대적 의의에 대한 재해석은 최근 인성관련연구 및 '[인성교육진흥법]'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논의하였다.

II. 본론

1.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인성 연구의 중요성

인성이란 인격(character), 성격(personality), 도덕성(morality), 인간본성, 인간 본연의 인간다운 품성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 해 볼 수 있다. 인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성품'이다. 성품은 성격과 품격을 말한다. 민중실용국어사전에 따르면, 성격은 정신적인 바탕 혹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독특한 바탕으로 정의되며, 품격은 물건이 좋고 나쁨의 정도, 혹은 품위, 기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인성이란 타고난 사람의 천성을 말한다. 한편 한국학교교육연구원에서는 인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독특한 심리적 양식으로서 타인의 언행에 대해 배려하는 공감능력과 소통하는 태도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책임성 있게 실천하는 역량이라고 정의[7]하였다.

한편 인성을 도덕적 인성, 사회적 인성, 감성적 인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7]. 도덕적 인성은 준법정신, 질서의식, 책임감 등이고, 사회적 인성은 공감, 공동체의식, 소통, 대화능력, 예절, 효 등이다. 감성적 인성은 윤리의식, 긍정적 사고, 자율성, 자존감, 자신감등을 말한다. 인성교육개론[8]에서는 인성의 의미를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의미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성이란 개인적으로는 '가치교육'으로, 심리적으로는 '마음교육'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교육'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인성은 생물학적 요인, 자연환경요인, 개인고유의 경험요인, 문화적인 요인, 육아방식 요인, 교육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형성된 독특한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성된 인성을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인성이나 가치관, 자녀의 성에 따라 육아방식은 차이가 나타나고, 부모의 육아방식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인성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며[9][10], 자기조절능력향상[11]을 가능하게 한다.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며, 특히 유아인성은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는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습득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아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인은 부모이다. 부모는 유아의 모든 발달과 연결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유아기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인성교육이 필수[13]이다. 따라서 부모의 인성은 자녀의 인성지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수대에 걸쳐 축적되어 온 삶의 양식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문화장치로서 자녀양육문화는 경제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전수의 맥이 단절되어 버렸다. 이는 프랑스의 Cathrine Rollet와 Marine-France Morel(2002)의 주장대로 각 지역의 고유한 양육법은 지난 수세기 동안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그 딸에게로 전승되면서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서구 문명사회에서는 온갖 종류의 대중매체를 통해 육아를 개인적인 학습과 지나가는 유행의 영역에 집어넣고 말았다고 언급하였다[14]. 자녀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고 정의[14]되어 있으므로 자녀양육을 위한 의식과 실제가 혼재되어 있다.

전통사회에서 혼인이란 자녀를 낳아 가계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중요하게 담겨 있었다.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겼으며, 자녀를 출산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또한 성인이자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만 하

는 과업이며 책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혼인과 자녀출산 및 양육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신과 인성을 함양한다.'는 것이 나아가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책임감으로 확산된다는 전통적인 의식은 희박해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근대화 이전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중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인격의 완성과 부모자녀간의 도리를 강조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한 신념을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곧 가정의 가치관이었으며, 자녀양육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선행연구[14]에 의하면, 자녀양육신념이란 '아이가 크는 자녀양육'에서 '어머니가 키우는 자녀양육'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양육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다면, 오늘날은 오히려 어머니가 아이를 주도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자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양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공동양육이 아동의 학습 준비도에 관련이 깊어[15]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의미 있게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본다면, 오늘날 부모가 되는 경우는 자녀양육의 책임과 의무감에 대해 전통사회보다 오히려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이므로 부모인성에 대한 재고는 한층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고전적 인성교육 측면과 연계된 현대적 인성교육방향을 제시한 연구[16]에 따르면, 태교와 모범을 통한 부모역할의 강조를 기본으로 하고, 가훈과 실천을 독려하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재고를 시도한 연구[17]에 의하면, 대학생의 인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학생이 지각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태도'이며, 대학생이 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임과 동시에 인성을 실천하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밝혔다. 이들 연구에 근거해 볼 때, 부모는 자녀양육을 위한 큰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며,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는 교육자이자 인생의 멘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인성에 대한 연구는 자녀의 인성함양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의적이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 『사소절』 〈사전〉에 나타난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인성덕목

1) 안정과 온화한 성정(性情)

조선시대 남성들에게는 선비로서의 성품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사소절』 <사전>에는 선비로서의 삶에 요구되는 남자들이 지켜야 할 근본 도리로 사단(四端)[1]과 구용(九容)[2], 오품(五品)[3]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근본 도리인 규범의 실천은 곧 개인이 갖고 있는 인성으로 발현이 되도록 했다. 성인 남성의 인성이란 곧 가정을 이룬 가장인 아버지의 인성을 말한다.

이덕무는 선대 인물평을 중심으로 지켜야 할 근본 행실을 제시하였다. '조정암의 공명하고 정직함, 퇴계의 침착하고 근신함, 율곡의 자세하고 온화함, 조헌의 근면과 정확함이 유학자의 근본 표준이 되는 행실'[4]이라고 하였다. 또한 '능 하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겸손하고, 이기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사치스러운 생각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담담하고, 조급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태평하고, 질투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평화롭다'[5]고 하였다. 즉 안정되고 온화한 성정이야말로 선비로서 아버지로서 가져야 할 인성임을 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18]에 따르면 '성정(性情)이란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또는 성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정과 온화한 성정'은 습관을 중심으로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습관이 될 수 있는 게으름을 보이거나, 비방과 비웃음을 보이고, 참되고 의리 있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바른 인성

1) 측은지심(惻隱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
2) 족용중, 수용공, 구용지, 성용정, 기용숙, 목용단, 두용직, 입용덕, 색용장
3)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유유신(朋友有信)
4) 『士小節』 士典 <性行> 靜庵之明直, 退溪之沆謹, 栗谷之詳和, 重峰之勤確, 儒者之宗準也
5) 『士小節』 士典 <敎習> 能心忘 則心謙, 勝心忘 則心平, 侈心忘 則心澹, 躁心忘 則心泰, 嫉心忘 則心和

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

'성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것을 두려워함은 사람됨의 근본적인 행실'[6]이며, '몸가짐을 깨끗하게 가지고, 사물 대함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곧 훌륭한 행실'[7]이라고 보았으므로 '한 가지 조그만 근심으로 인하여 낯을 찡그리며 우는 모양을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 조그만 분노로 인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하는 모양을 해서는 안 된다.'[8]고 하였다. 성정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정관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관리가 되지 못하면 일상에서 그릇된 판단과 실수로 이어지므로 이를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의 인성이란 한번 보아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짓 인품은 사람을 많이 겪어 볼수록 더욱 간사해지고, 참된 인품은 여러 사람을 겪어 볼수록 더욱 숙련해진다'[9]고 하여,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여 습관화 하도록 강조하였다.

위와 같이 사전(士典)에는 온화한 성정을 바탕으로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성품을 기르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며,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인성을 갖추도록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옷차림을 잘 정제하며, 걸음걸이를 반듯하고 신중하게 하며, 말을 경솔하거나 야비하게 하지 말고, 앉고 서는 것은 민첩하게 하고, 일은 공경으로써 하고, 게을리 하지 말 것과, 남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그릇된 자기관리와 행동들이 사람의 온화한 기운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근본 행실을 만들게 된다고 보았다.

2) 신뢰와 절제

『사소절』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신뢰와 절제'의 인성은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언행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신뢰와 절제의 의식은 언어와 행동으로 그대로 외현적인 발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위엄을 상하고 정성을 감소시키며, 기운을 해치고 일을 무너뜨린다.'[10]고 했으며, 선비로서의 올바른 행실이 언어로부터 나타난다고 보았다. '속된말이 한번 입 밖에 나오면, 선비의 행실은 그 즉시 땅에 떨어지게 된다.'[11]고 하였다. 특히 신뢰는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인성인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갖고 올곧은 절제된 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난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된 말, 원한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12]고 하였다. 또한 헛된 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확산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퍼뜨려서도 안 된다.'[13]고 하였다. 이와 관계된 예를 든다면, 아들이나 딸이 이미 혼인을 하였으면, 절대로 지난날의 신랑이나 신부될 사람에 대하여 의논하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 것이다[14]. 필요하지 않은 말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지 말게 하며, 타인에 대한 선입견의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뜻한다. 특히 아버지로서 절제된 언어생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는 요령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한다. '가장된 사람이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내지 말고, 집안사람들이 감히 말하여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도리가 바로잡힐 것이다'[15]라고 하여, 아버지로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절제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미는 언어의 표현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전달된다. 따라서 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절제된 행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경계하도록 하였다. 곁눈으로 남의 기색을 살피는 것은 밝고 상서

6) 『士小節』 士典 <性行> 恥憤惕悔, 爲人之基
7) 『士小節』 士典 <性行> 潔以持己, 溫以接物, 斯吉矣
8) 『士小節』 士典 <動止> 不可因一小愁 作噸蹙 欲哭之狀, 不可因一小恚, 作吼嗆 欲罵之容
9) 『士小節』 士典 <交接> 假人品 閱人愈多 而愈狡黠 眞人品 閱人愈多 而愈鍊熱
10) 『士小節』 士典 <言語> 多言者 傷威損誠 害氣壞事
11) 『士小節』 士典 <言語> 俚俗之言 一出口 士行 卽時墜地
12) 『士小節』 士典 <言語> 聞淫媟 悖亂 誕妄 譏訕 機詐 峭刻 誇張 怨恨之言 切不可酬答
13) 『士小節』 士典 <言語> 亦不可傳播他人
14) 『士小節』 士典 <言語> 子女旣成婚姻 切勿言前日嘗與議壻婦之人
15) 『士小節』 士典 <御下> 或問御家之要 子曰 家長毋出不忍聞之言 家衆毋作不敢言之設 則家道正矣

로운 기상이 아니다[16] 입으로 방향을 가리키지 말고, 발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17] '근신'에는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본래의 분수를 삼가 지킬 것이지, 이기려는 기세로 남에게 덤벼들지 말아야 한다.'[18]고 하였고, '사람이 종일토록 다행스럽게 망령된 말과 어긋난 행동이 없으면 밤에 잘 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것이다'[19]는 바를 보면, 스스로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언행을 반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제의 인성을 강조한 바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분함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고, 음식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는 네 가지는 가히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것을 제거할 수 있다'[20]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뢰와 절제'의 인성은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며, 아버지 자신의 언행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해와 배려

자녀양육을 위한 부의 인성으로 '이해와 배려'가 강조되었다. 사전적 의미로 이해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잘 알아서 받아들임'을 뜻하며,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때는 엄중하게 단속하기 보다는 자녀의 기질과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여, 그 아이의 특성을 배려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전통사회의 부모의 모습은 '엄부자모(嚴父慈母)'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버지로서 '안정되고 온화한 성정'을 갖는 것과 더불어 '이해와 배려'의 인성을 갖추는 것이 자녀양육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는 신중하고 안정된 사람이 있겠는가?'[21] 라고 하여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이해심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자칫 체벌할 상황이 되더라도 경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꾸짖지 말고, 마구 때리지 말라. 마구 때리는 사람은 중요한 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22] 라고 하였으며, '아이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 경중을 따라서 돈독히 경계하거나 엄격히 책망할 것이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사나운 낯빛을 나타내거나 번거로운 말로 되풀이하여 야단을 치거나 조리에 맞지 않게 마구 들볶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은의와 위엄이 없어져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인정과 의리가 상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23] 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내나 자식에게 비록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빠른 소리로 욕하거나 꾸짖어서는 안 되고...'[24]라고 하여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이해 없이 체벌을 하고 꾸짖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우쳐야 할 것임을 일컫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살피는 것이 벼슬을 구하는 것보다 낫다.'[25]고 하여, 아버지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3. 『사소절』 부의에 나타난 자녀양육을 위한 어머니의 인성덕목

1) 공순과 화순

전통사회에서 어머니는 자녀양육을 위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훌륭한 자녀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맹모삼천지교를 보여준 맹자의 어머니나 한석봉의 어머니,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등은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어머니로서의 인성에 대한 기술은 『사소절』 부의

16) 『士小節』 士典 <服食> 而從笠簷流睨伺察人氣色 非陽明吉祥之象也
17) 『士小節』 士典 <動止> 勿以口指方 勿以足遷物
18) 『士小節』 士典 <謹愼> 翼翼兢兢 恪守素分 勿以勝氣加人
19) 『士小節』 士典 <謹愼> 人於終日 幸而無妄言違行 夜眼必安靜
20) 『士小節』 士典 <事物> 懲忿窒慾 節食愼言四者 可省千百紛 紜擾亂之事
21) 『士小節』 士典 <敎習> 小兒何嘗 有沉重安靜者哉?
22) 『士小節』 士典 <御下> 卑幼 雖有過失 勿亂罵 勿散毆 散毆者 不辨要害也
23) 『士小節』 士典 <御下> 卑幼有過 隨其輕重 敦戒而嚴責之 不可疾聲厲色 煩言複語 顚倒錯亂 不惟恩威俱失 亦恐情義有傷
24) 『士小節』 士典 <御下> 妻子 雖有不令如意 不可疾聲詬罵
25) 『士小節』 士典 <事物> 治生保家 傷於干祿

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유교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의 사덕(四德)이 강조되었다. 이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씨와 더불어 말씨와 맵시, 솜씨라고 할 수 있다. '덕행은 편벽하고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씨는 구변이 좋아 말을 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맵씨는 곱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솜씨는 교묘하고 야단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26]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인성으로 부덕(婦德)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순과 화순으로 다른 내용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부인이 순한 성품을 갖춘 뒤에야 안으로 화순하게 다스리고, 안으로 화순하게 다스린 뒤에야 집안이 오랜 복을 누릴 수 있다'[27]고 하여 공순하고 화순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인성임을 설명하였다. '공순은 온갖 덕행의 모임이고, 화순은 온갖 상서의 창고'[28]라고 하여 공순으로 덕행을 쌓고, 화순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으로서 덕행을 쌓으면 그 아들딸들이 번성하고 잘 자란다.'[29]고 하였다'. 어머니로 '공손과 화순'의 인성을 갖추고 덕행을 쌓게 되면 어진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사납고 표독하거나 시새움과 노여움이 많고, 잔혹한 성품 등은 경계하였다. '집안사람의 도리는 그 이로움이 부녀자의 바른 행실에 있다'[30]고 하였다.

부의(婦儀) 언어(言語)에는 여성들이 지켜야 할 부언(婦言) 즉 소통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 어머니로서 언어생활에 주의해야함을 보여준다. 음란한 말, '죽겠다'고 하는 말, 아랫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는 말, 번거롭게 반복하여 하는 잔말, 속된 말, 과장된 말, 거짓말, 덧붙여 하는 말 등은 경계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가친척들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에 '때리고 꾸짖는 소리가 항상 밖으로 나가면, 그 집안의 법도가 쇠망하여 무너져 버릴 것은 알만하다'[31]고 하여 정숙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일컬었다.

2) 책임

어머니 인성으로 '책임'을 강조한 것은 특히 규범적 의식과 실천성을 강조한 자녀양육 자세에서 언급되어 있다. 부의편(婦儀篇) 교육(教育)에는 명나라 사람 하흠이 딸에게 가르친 열두 가지 조문을 인용되어있다. 이 내용 중에는 어머니로서 자상하고 공손함과 부지런함 이외에 효도와 예의, 화목, 친척에 대한 공경, 근검 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침착하고 공손하고 부지런해야 하며....아들딸을 바른 도리로써 가르쳐야 한다.... 길쌈을 부지런히 해야한다.... 재물을 아껴 써야 한다'[32]라고 하였다. 나아가 부모로서 '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망치고, 딸을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친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33]라고 하였다.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금수와 같아진다고 보았고,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큰 책임임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책임져야할 자녀양육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가르칠 것, 딸이 자녀를 잉태했을 때에는 태교를 잘 하도록 할 것, 어머니 스스로 올바른 도리를 행해서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자식이 불초한 것은 어머니가 그 허물을 덮어 주어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데 말미암은 것'[34]이라 하였다.

특히 인륜에서는 자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시부모를 잘 모시는 효도를 실천하도록 강조하며, 형제간에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나타내었다.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부여되는 '책임성'을 주목했던 것이다. '형제의 아내의 아들이 혹 서로 싸울 때, 자기의

26) 『士小節』 婦儀 <教育> 予以爲德非便慧之謂也, 言非辯利之謂也, 容非艶之媚之謂也, 功非巧靡之謂也
27) 『士小節』 婦儀 <性行> 是故婦順備 而後內和理, 內和理, 而後家可長久也
28) 『士小節』 婦儀 <性行> 順者'百德之藪 和者百祥之府
29) 『士小節』 婦儀 <性行> 婦人險德, 子女蕃育
30) 『士小節』 婦儀 <言語> 家人之道, 利在女正
31) 『士小節』 婦儀 <言語> 打兒罵婢之聲 常 出於外, 其家道之衰敗可知
32) 『士小節』 婦儀 <教育> ... 曰安詳恭勤, ...曰教子女以正... 曰務紡績以勤,... 曰用財物以儉.
33) 『士小節』 婦儀 <教育> 不教男子 亡吾家, 不教女子 亡人家 , 故教之不預 父母之罪也
34) 『士小節』 婦儀 <教育> 子所以不肖者 由母蔽其過, 而父不知也.

아들을 편벽하게 두호하여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35] '부인의 성품이 왕왕 사랑함이 아들보다 지나치고 사위를 사랑함이 며느리보다 지나쳐서 심지어는 가정의 법도를 무너뜨리니 어쩌면 그렇게도 편벽한가?'[36] 라고 하였다. '사위와 며느리를 고르는 데는 덕과 행실을 먼저하고, 가정의 법도와 문벌을 그 다음으로 볼 것이다. 만약 덕행이 없으면 비록 왕사(육조때 진나라 사람)나 최노(육조때 당나라 사람)와 같은 명족(명망이 있는 집안)이라도 족히 볼만한 것이 못 된다.'[37]라고 하여 물질적인 것보다 인품과 덕행을 우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소절』에는 어머니로서의 인성덕목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며, 효도와 화목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해와 배려

어머니로서 자녀를 잉태하여 태교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배려'는 아버지 인성에서도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일상에서 매우 필요한 기본 인성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젖 먹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 성급한 부인은 그치게 할 방법을 모르고 도리어 꾸짖기를 마치 지각이 있는 아이가 일부러 우는 것처럼 여긴다.'[38] 고 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사물(事物)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바늘을 옷깃에 꽂지 말라. 이는 젖 먹는 아이가 찔릴까 두려워함이다. 아이가 젖꼭지를 물고 자게 하지 말라. 이는 체하여 소화되지 않을까 두려워함이다. 갓난아이를 뉘일 때 반드시 베개를 바르게 하라. 이는 그 머리통이 비뚤어질까 두려워함이다. ...'[39] 하였다. 이렇듯 어머니로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은 자녀의 특성을 잘 살핌과 동시에 육아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주의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기본 인성으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잘 체득하는데 힘쓸 것'[40] 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해와 배려' 덕목을 강조했음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다. '남이 음식을 차려 보내거든 모름지기 노인과 젊은이를 헤아려서 고르게 분배하라.'[41] 하여 노소의 배려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여러 아들 며느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하더라도 이를 대우하는 데 박하고 후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은 원망하고 부유한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니, 가정의 법도가 어그러짐이 이런 데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42]고 하여, 어머니가 혼인한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만 가정의 화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였다.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바른 인성과 현명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는 어린 자녀의 양육에서부터 성장한 자녀를 살피는 데에도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사소절』에 나타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인성덕목의 현대적 의의

『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은 [표 2][표 3]과 같다. 사전(士典)을 중심으로 본 아버지 인성덕목은 '안정되고 온화한 성정', '신뢰와 절제', '이해와 배려'로, 부의(婦儀)를 중심으로 본 어머니의 인성덕목으로는 '공순과 화순', '책임', '이해와 배려'로 나누어 보았고, 그 실천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부모가 지향하는 인성덕목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인성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실천내용은 부모가 각자 맡은 소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성을 도덕적 인성, 사회적 인성, 감성적 인성으로 구분[7]한 바에 견주어 보면, 『사소절』에 나타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인성은 도덕적 사회적 감성적 인성이 융합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심신을 다스리는 수신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감성적 인성과 더불어 공동체

35) 『士小節』 婦儀 <人倫> 妯娌之子 或相鬪鬩 不可偏護己子 發作惡聲
36) 『士小節』 婦儀 <人倫> 婦人之性 往往愛女逾於子 愛婿逾於婦 甚至家道壞敗 何其偏也?
37) 『士小節』 婦儀 <人倫> 凡擇婿婦德行爲先 家範門閥次之 若無德行 雖王謝●崔盧之名族 不足觀也.
38) 『士小節』 婦儀 <教育> 幼孩無知 啼泣咷咷 躁性之婦 不知思所以止之之術 反乃嘀嘀然詈 有若眞有知 而故爲啼泣者然
39) 『士小節』 婦儀 <事物> 勿攢鍼於襟 恐乳兒之觸之也, 勿使兒含乳蒂而睡, 恐其積而不化, 新生兒 臥必正枕 恐其腦之不正也.
40) 『士小節』 婦儀 <事物> 婦人之德 當務體下情
41) 『士小節』 婦儀 <服食> 人有醜饌, 須計老少分排均齊
42) 『士小節』 婦儀 <人倫> 衆子婦或貧或富, 不可待之或薄或厚, 若有間焉, 則貧者怨, 而富者驕, 家道之乘, 未必不由於此.

삶을 위한 책임, 소통, 절제, 예절, 효, 배려 등 사회적 인성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인성덕목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표 2. 『사소절』에 나타난 아버지인성덕목과 실천

인성덕목	실천
안정과 온화한 성정	·성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부지런하고 검소하라. ·어버이를 사랑하라. ·옷차림을 잘 정제하라. ·걸음걸이를 반듯하고 신중하라. ·기거동작을 민첩하게 하라. ·남과 다투지 마라.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조급한 생각을 버려라. ·겸손하라. ·마음을 평안히 갖도록 하라. ·사치한 생각을 버려라.
신뢰와 절제	·헛된 말을 전하지 마라. ·음란하고 허망한 말을 하지마라.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하지 마라.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마라. ·가혹한 말을 하지 마라. ·과장된 말을 하지 마라. ·원한의 말을 하지 마라. ·곁눈으로 남을 살피지 마라.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분수를 지켜라. ·밤에 일과를 반성하라. ·분함, 욕심, 음식, 말을 절제하라.
이해와 배려	·아이들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분별없이 욕하거나 때리지 마라. ·큰소리를 치지 마라. ·사나운 눈빛을 보이지 마라. ·번거로운 말로 반복해 꾸짖지 마라. ·가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알라.

•본 연구자가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표 3. 『사소절』에 나타난 어머니인성덕목과 실천

덕목	실천
공순과 화순	·사나움과 표독함을 경계하라. ·시기하지 마라. ·덕행을 쌓아 자녀를 양육하라. ·음란한 말을 하지 마라. ·아랫사람을 꾸짖고 책망하지 마라. ·잔소리, 속된말, 과장된 말을 하지 마라. ·자녀를 때리고 꾸짖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책임	·아들 딸을 바른 도리로 가르쳐라. ·아들 딸을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라. ·자식의 허물을 덮기만 해서는 안된다. ·지식의 허물을 아버지도 알게 하라. ·자녀들에게 음식절제를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라. ·딸이 잉태 시 태교를 잘하도록 하라.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라. ·형제화목의 책임을 다하라. ·부지런하고, 재물을 아껴 써라.
이해와 배려	·노인과 어린아이를 헤아려라. ·자녀양육에서 항상 안전을 유의하라. ·말 못하는 젖먹이의 상태를 잘 살펴라.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라. ·자녀의 빈부에 따라 후박을 구분 말라.

•본 연구자가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첫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인성덕목이 갖고 있는 현대적 의의는 '보고 배우는' 학습을 통한 계승이다. 선행연구[12]에서 보았듯이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를 볼 때, 『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의 인성덕목의 특징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사료된다. 유교교육에서 부교(父敎)를 중심으로 본 인성교육 연구[19]에서도 아들을 교육하는 아버지 공자의 가르침을 '과정지훈(過庭之訓)'이라 하여 동아시아 부교론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박지원의 과정록(過庭錄)이나 아들과의 편지를 통하여 '원격교육'을 시도했던 정약용의 자녀교육[20] 등에서도 현대 부모의 역할을 돌아보게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인생관과 가치관을 상속시켜주는 의미가 크다고 보면서, 인성교육측면에서 부모의 자식교육을 논의하였다. 이렇듯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인성과 그에 따른 자녀교육은 그대로 자녀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듯이, 오늘날에도 가정 내 교육에서 아버지의 교육적 역할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전통사회에서로부터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여겼던 의식은 매우 편향적인 인식임을 이러한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연구[21]에서는 아버지들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이나 목적 내용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고 있고, 유아기를 인성교육의 적기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교육 참여는 보통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아버지들의 인성교육 참여는 유아의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 충동성 등 인성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사소절』에 나타난 아버지 인성으로서 '안정과 온화한 성정', '신뢰와 절제', '이해와 배려'의 인성은 현대에도 의미 있는 도덕적 사회적 인성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성덕목은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되며, 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둘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인성덕목의 의의는 올바

른 언행을 통한 실천성에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22]를 보면,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및 공감능력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정서표현을 하고 인성지향적으로 언어통제를 할 때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아지며,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정서표현을 할 때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의 '이해와 배려'라는 인성덕목이 오늘날에도 자녀양육을 위해 갖춰야 할 바로 의미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자녀를 향한 긍정적인 언어와 감정의 표현은 우선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자녀 인성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2]에서는 인간이해 의식이 발달한 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면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존중하며 자녀와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는 자녀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로서의 '이해와 배려'는 성역할을 중시했던 17세기의 시대적 배경을 초월하여, 오늘날 양성평등시대에 있어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자녀교육을 위한 성숙한 부모로서 갖춰야할 부모인성덕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사소절』의 내용에도 강조되고 있는 이들 덕목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 지향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아버지의 '안정과 온화한 성정', '신뢰와 절제', '이해와 배려', 어머니의 '공순과 화순', '이해와 배려'의 인성덕목에 내포된 실천사항을 보면, 주로 언어표현에서 유의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즉 청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바른 언어표현, 감정통제적인 표현 등이다. 이러한 인성이 현대에도 중요함을 뒷받침 해 주는 연구를 볼 수 있다. 선행연구[23]에 따르면,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이 인성지향적일 때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갖춰야 할 인성과 그 실천에 있어서 언행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인성덕목의 의의는 가족윤리로서의 가계(家戒)로 강조된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책임'과 아버지의 '이해와 배려'의 인성덕목에서 실천성으로 강조되어 있는 가정에서의 효와 형제간의 화목, 가정을 잘 다스리는 등의 내용은 전통사회에서는 특히 강조되어 왔던 바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인성관련연구[24]에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방안으로 부모역할과 태도에 중점을 두면서, '효'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즉 이는 가정에서의 기본교육이며,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과 훌륭한 인격형성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일련의 연구[25][26]에서도 강조되었다. 이는 천륜관계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지켜가야 할 가족윤리[27]의 기준으로 상호존중과 연대감을 갖게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신이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모자신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면서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해야한다. 동시에 혈연을 중심으로 '우리'의식을 강하게 갖게 하는 연대감을 요구하게 되므로, 부모인성덕목은 한 세대에 발현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고, 가계(家戒)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효를 실천하고 가족 윤리를 지켜나가는 기본 인성이 함양된다면, 나아가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바른 인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인성은 가계(家戒)로서도 강조되며, 오늘날 연구를 통해서도 그 가치와 현대적 의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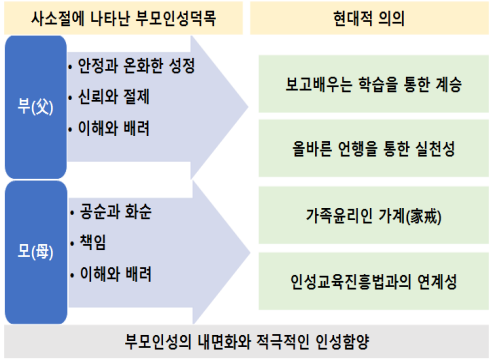

그림 1. 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의 현대적 의의
•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도식화 한 것임.

넷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인성덕목은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명시된 인성핵심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되어 있는 8가지 인성핵심덕목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의 덕목이다. 즉 인성함양을 위한 기본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위 법제에서는 예와 효를 비롯하여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위해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사소절』에 나타난 부의 인성덕목인 '안정과 온화한 성정', '신뢰와 절제', 모의 인성덕목인 '공순과 화순', '책임' 등은 주로 수기(修己)적인 면에 해당되며,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예와 존중의 덕목과 연계되어 있다. 한편 부모의 인성지향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해와 배려'는 타인과의 관계에 필요한 치인(治人)적인 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배려와 소통, 효의 덕목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은 오늘날 법제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덕목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부모는 자녀양육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부모자신의 인성이 곧 자녀에게 투영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해야만 한다. 사회의 구성은 가정을 기본으로 시작되고, 그 가정과 인류의 존속은 바로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숭고한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부터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로서 자녀양육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올곧은 인성은 무엇인가?' 의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물질중심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혼란을 거듭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모로서 갖춰야할 인성덕목과 그 지향성을 전통사회의 교육고전에 주목하여 찾고자 하였다. 『사소절』의 사전과 부의를 중심으로 내용분석 하여, 그것이 오늘날 부모인성재고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 지 현대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전통사회의 교육고전은 오늘날 재조명되면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자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소절』은 개인의 수신과 인성함양을 위한 내용이 실천가능 하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교육적이고 실용적인 고전이다. 다만, 『사소절』은 170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으므로, 남녀의 성역할 구분에 따른 부모인성을 논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오늘날 보편적인 양성평등적 이데올로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전제하였다. 즉 남녀의 성역할이나 성차별적 관점이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공통적 책임과 남녀의 서로 다름에 대한 수용을 전제한 조화로 부모인성덕목의 추출에 초점을 두었고,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최근 관련 연구와 '[인성교육진흥법]'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현대적 의의를 해석하였다.

본론에서는『사소절』에 나타난 부모인성덕목을 각각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아버지로서의 인성덕목은 '안정과 온화한 성정', '신뢰와 절제', '이해와 배려'로 분류하였으며, 어머니로서의 인성덕목은 '공순과 화순', '책임', '이해와 배려'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인성에 대한 재분류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부모인성은 도덕적 사회적 감성적 인성이 융합된 내용이며, 특히 개인의 도덕적 인성과 타인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사회적 인성으로도 구분할 수 있었다. 부모인성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부모인성덕목은 몇 가지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첫째는 보고 배우는 학습을 통하여 계승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올바른 언행을 통한 실천성에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가족윤리인 가계(家戒)로 강조된다는 점이며, 넷째는 오늘날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인성핵심덕목과 『사소절』에서 볼 수 있는 부모인성덕목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부모인성덕목은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교육으로, 형이상학적인 가치규범으로 내재화되며, 실천을 통하여 일상에서 발현되고 반복되어 체득된다. 『사소절』에서는 상세한 실천내용을 제시하여, 인성덕목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오늘날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8가지의 인성핵심덕목이 제시되어 있고, 사회에서는 이러한 법제화를 기반으로 인성교육의 실천성을 계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초등교육을 비롯하여, 교과차원의 가정교육, 체육교육, 교양교육, 윤리교육 등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일련의 연구[28-33]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제에 따른 노력과 더불어 인성이란 우리의 민족적 정서적 정체성을 담고 있고,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계승의 의미가 있다는 상기하며, 전통사회의 교육고전을 중심으로 인성의 핵심가치들이 재조명되는 기반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다산정약용과 신사임당의 자녀교육 연구[34]와 같이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계와 자녀의 인성교육으로 강조되었던 바를 찾아 그 의의를 재논의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선행연구[35-37]와 같이 인문학콘텐츠 연구로 현대의 부모인성교육을 위해 재창조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사소절』의 부모인성덕목도 오늘날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로 응용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녀 교육차원에서 인성교육연구도 필요하지만, 부모 자신들의 인성에 대해 반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양적연구나, 질적 연구를 시도하여 현재 부모들의 의식과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부모인성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안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첨언을 하면, 자녀인성교육에 앞서서 부모인성은 올곧게 정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원초적 질문과 숙고를 바탕으로 부모로서 자녀인성교육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이 재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가치지향성을 갖고 세대를 이어 계승되는 바람직한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스스로 인성덕목을 내면화하고 적극적으로 함양해 나아가는 귀감이 되어야 한다. 『사소절』에 제시된 부모인성덕목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실천내용은 시대성을 반영한 부모의 소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치지향적인 부모인성덕목은 부부가 공동으로 수용 발전시킬 의미가 크지만 부모인성덕목이 발현되는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첫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정형화된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둘째 부와 모의 인성덕목과 특성을 각기 수용하는 자세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셋째로는 양성평등지향의 시대성에 따라 부부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부와 모가 지니고 있는 인성덕목과 강점을 중심으로 자녀양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역할분담과 실천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연문희,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인성이다,” 열린부모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제14권, pp.1-15, 2015.

[2] 윤성경, *자녀 인성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 심성보, *도덕교육의 담론,* 학지사, 2000.

[4] 오용섭, “「청장관전서」 定橋本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39권, pp.87-111, 2008.

[5] 원미연, 주영애, “남성 예절교육을 위한「사소절」사전의 내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Vol.291, 2016.

[6] 최배영, “「사소절」의 식생활규범을 토대로 한 대학생 인성교육콘텐츠,” 차문화산업학, 제38권, pp.209-246, 2017.

[7] 전도근 외 3인,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2016.

[8] 최원호, *인성교육개론,* 학지사, 2016.

[9] 김수혜, *인성교육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0] 조은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1] 노미숙, 권경숙, “동화를 통한 인성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연구, 제12권, 제1호, pp.9-34, 2015.

[12] 한명숙, “부모의 인성지향적 지도가 자기조절능력,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인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2권, 제4호, pp.105-123, 2015.

[13] 김응자, “부모의 인성교육에 관한 근본적 연구(1) -유아기의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81권, 제81호, pp.1229-1749, 2016.

[14] 이하정, “조모세대와 모세대간의 자녀양육문화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제4권, 제1호, pp.141-167, 2005.
[15] 고하림, *부모의 공동양육과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6] 채명금, "인성교육의 현대적 실천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제3권, 제2호, pp.327-344, 2016.
[17] 박인선, *대학 인성교육의 재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8] http://stdweb2.korean.go.kr
[19] 한예원, "유교교육에서 본 '인성교육' : 부교(父敎)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42권, pp.215-234, 2015.
[20] 주영애, "교육콘텐츠개발을 위한 다산 정약용의 가정생활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pp.529-544, 2018.
[21] 손수민, 김희환, "인성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참여 실태가 유아의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367-388, 2016.
[22] 곽운숙,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이 유아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적 효과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23] 김지현,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4] 김진선, *인성교육의 개념적 이해와 가정에서의 실천방안,*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25] 김익수, "한국의 효사상과 효문화 : 율곡의 효사상과 인성교육론(5). -부모 모심(事親)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효문화, 제24권, pp.11-35, 2014.
[26] 김황기, "부모의 효교육이 청소년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1)," 청소년과 효문화, 제29권, pp.141-177, 2017.
[27] 주영애, *한국 가정의 생활문화,* 신정출판사, 2017.
[28] 박종덕, "인성교육과 가정교육," 도덕교육연구, 제24권, 제3호, pp.153-174, 2012.
[29] 홍석영, "인성개념 및 인성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등교육연구, 제25권, pp.183-198, 2013.
[30] 황준성, 서정화, "인성교육진흥법 입법화 과정 및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33권, 제4호, pp.233-255, 2015.
[31] 신민혜, 조남기, "인성교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안 분석을 통한 학교체육 및 스포츠클럽활동의 방향성 탐색,"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3권, 제2호, pp.39-42, 2015.
[32] 김선주,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성척도 개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pp.217-258, 2017.
[33] 신중섭, "국가의 중립성과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46권, pp.213-226, 2017.
[34] 박영순, *조선시대 자녀교육에 대한 고찰 : 정약용과 신사임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5] 신춘희, *유아기 부모와 전문가가 인식한 부모의 인성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6] 김경미, *자녀 인성함양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전통교육을 기반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7] 박주혜, *전통 아동교훈서에 나타난 교육사상 연구; 경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저 자 소 개

주 영 애(Young-Ae Ju) 정회원

- 1985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198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석사)
- 1992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학(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생활문화, 예절교육, CS